

전북자치도교육청 - 중국 길림성교육청

학생·교직원 교류 활성화

서거석 교육감, 장춘사범대·길림성실험중 차례로 방문 장춘사범대, 교사 교육 관련 프로젝트 공동 연구 제안 길림성실험중, 한·중 양국 국제교류수업 방안 등 협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중국 길림성 교육청과 학생·교직원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2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서거석 교육감은 24일(현지시간) 중국 길림성 교육청과 국제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25일에는 중국 길림성 장춘사범대학교와 길림성실험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했다. 장춘사범대학에서는 리우평페이 부총장과 간부들을 만나 학생·교직원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장춘사범대학은 장춘 지역 교육 현황 등을 소개한 뒤 교사 교육 관련 프로젝트를 전북교육청과 함께 연구하자고 제안했다.

이어서 교육감은 “교사 교육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장춘사범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교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사 교류가 활성화 될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길림성실험중학교에서는 △협력 증진을 위한 학생 평가 방안 △학교 폭력 발생 시 교육적 절차 △양국의 국제교류수업 방안 등을 협의했다. 특히 학생 방문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완상 길림성실험중학교 교장은 “교육은 국가의 미래며, 인류의 희망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한중 양국의 교육 경험을 활발히 공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한편 서 교육감은 24~27일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학생들의 국제교류수업 확대 △온라인수업과 현지 방문 학생의 대면 수업 △교직원 방문 연수 등 향후 양국간 교류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와 자매관계인 강소성을 비롯해 산동성, 절강성과도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서 교육감은 “길림성 교육청과의 이번 협력이 양국 교육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국제적인 시야를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길림성 교육청은 유·초·중·고 및 대학까지 관내 9,000여 개 학교를 관할하고 있다. 소속 학생 수는 300만여 명에 달한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24일(현지시간) 중국 길림성 교육청과 국제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25일에는 중국 길림성 장춘사범대학교와 길림성실험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했다. 사진은 길림성실험중학교를 방문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북교육청, 직업계고 학생 해외 취업 지원

남원서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 역량 강화 연수 학생 60명 등 대상 진행 7월 말·8월 말 각각 50명 출국 TAFE NSW서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24~26일 남원에서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현장학습)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24~26일 남원에서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현장학습)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호주 시드니 인턴십 참여학생 60명과, 인솔교사 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는 호주 문화와 산업을 이해하고 해외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는 등 참여학생과 인솔교사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호주 전문 직업교육기관 연수를 통해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5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참여 인원을 100명으로 확대했다. 공업, 말사육, 원예·조경, 서비스·사무회계 분야 등 총 12개 분야에 20

개교 학생들이 참가해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및 영어면접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발했다. 특히 호주 파견 전 원어민 화상교육을 주 2회씩 듣고, 역량 강화 연수·안전교육·인성교육·진로 교육·호주 문화이해 교육 등 사전 준비 교육에 만전을 기했다. 이후 7월 말과 8월 말에 각각 50명의 학생이 출국해 호주 국립 교육기관(TAFE NSW)에서 4~6주간의 교육을 받는다.

이강 창의인재과장은 “글로벌 인턴십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글로벌 감각과 전문기술 능력을 갖춘 전문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내실있는 인턴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해 호주 현지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7~19일에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인턴십을 진행할 기계가공 등 6개 분야 학생 40명과 인솔교사 2명이 역량 강화 연수를 마쳤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2024 창업중심대학 Univ. Star Competition 사전캠프' 개최

국내 7개 대학 56명 학생 대상... 베트남 현지 진출 위한 이해, 만다라트 기법 활용 아이디어 발굴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지난 25~26일 양일간 스위트호텔 남원에서 '2024년 창업중심대학 Univ. Star Competition' 사전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손정민)은 지난 25~26일 양일간 스위트호텔 남원에서 '2024년 창업중심대학 Univ. Star Competition' 사전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 Univ. Star Competition'은 오는 8월 17일부터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창업 박람회인 메가트렌드 박람회(MEGA-US) 행사에서 진행되는 대학생들의 창업경진대회다. 이번 행사는 전북대와 강원대, 순천대, 부산대, 원광대, 전남대, 호서대 등 7개 대학 주관으로 각 대학에서 선정된 학생 56명을 대상으로 베트남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이해와 전략, 만다라트 기법을 활용한 아이디어 발굴 및 그룹 멘토링 등이 운영됐다. 이를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고도화한 학생들은 한국과 베트남 대학생 연합팀을 구성, 팀별로 온라인을 통해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나간다. 이후 8월 17~24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리는 글로벌 연합창업캠프를 통해 창업 아이디어의 구체화와, 베트남 메가 트렌드 박람회

(MEGA-US)에서 창업경진대회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손정민 창업지원단장은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청년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참여 학생들은 베트남 대학생과의 협력을 통한 동남아시아권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창업지원단에서는 대학의 해외 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청년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초·중·고생 1093명에 총 5억 지급

전북자치도교육청사망의장학회, 재능우수자 등 3개 분야서 선발... 작년 대비 2.6배 증가

(재)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망의장학회가 장학금 지급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사망의장학금은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재능우수자 등 3개 분야에서 총 1,09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도내 모든 학교에서 1명 이상의 학생을 선발해 5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1982년 사망의장학회 설립 이후 역대 최대 지급액이며, 2023년 대비 2.6배 증가한 규모다. 이는 사망의장학회가 2023년 8월 말 교육부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연기관으로 지정돼 장학금 4억원과 기본재산 편입 4억 원 등 모두 8억원의 출연금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지원받은 데 따른 것이다. 장학금은 각급 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지원청 및 본청 사업 부서의 심의

과정을 거쳐 7월 중 최종 선발된다. 학교업무 경감 차원에서 기존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선발하던 것을 상반기 1회로 통합 선발해 7월과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학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5 온라인학교 운영 방향 안내

전북자치도교육청, 도내 일반고 교감 등 대상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6일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에서 도내 96개 일반고등학교 교감 및 교육과정 업무담당교사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북온라인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4학년도 전북온라인학교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방향을 안내했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온라인학교는 올해 1학기에 물리학I, 생명과학I, 경제, 정치와 법, 인공지능 기초, 중국어I 등 21개 강좌를 개설했다. 이에 산서고등학교 외 12개 학교 220여 명의 학생들이 소속교에서 개설하지 못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됐다. 산서고 김성현 교사는 “특정 교과 교원 미배치나 소인수 선택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주

지 못하는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어려움을 전북온라인학교가 보완해 줄 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전했다. 2학기에는 14개교 27개 강좌에 257명의 학생들이 전북온라인학교를 통해 보다 다양한 과목을 배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과목을 개설할 계획”이라며 “전북온라인학교를 통해 도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더 풍성해 나갈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지난 3월 1일 전북온라인학교를 개교했다. 이는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수업을 통해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LINC 3.0 사업단 LINC STAR 컨소시엄 참가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25~26일 양일간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개최된 'LINC STAR 컨소시엄' 사업성과 공유·확산 포럼에 참가, 3차년도 ICC 운영성과 보고 및 재학생 대상 공동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LINC STAR 컨소시엄'은 거제대학교를 회장으로 LINC 3.0 사업에 참여하는 각 권역별 전문대학 6개교가 참여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ICC운영 활성화 및 지원 △유사 ICC간 공동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총합평가 대비 성과공유를 위한 공동 플랫폼 구축 △RISE 대비 지자체와의 연계·협업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토론했다. 또한 영진전문대학교의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각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ESG의 개념과 실제를 주제로 한 특강과,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영상편집 및 UCC 콘테스트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장은성 기자

'생성형 AI 등장... 취업준비에 큰 변화'

전주대, '생성형 AI 활용 기업분석 경진대회' 성료 업종 특성·시장 환경 등 토대 분석자료 발표 '호평'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24~25일 이틀 간 모항해나투가족호텔에서 진행된 '생성형 AI 활용 기업분석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재학생 67명이 참여한 가운데 펼쳐진 이번 경진대회는 대화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취업역량 강화와 도내 우수기업 인지도 및 체감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생성형 AI가 가져올 미래 변화와 취업 준비 전략 △생성형 AI 활용 도내 기업분석 실습 등으로 실시됐다. 특히 참가자들이 직접 10개의 도내 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업종 특성, 기업의 재무 상태, 시장환경, 경쟁사, 전략 등을 토대로 작성한 기업분석 자료를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경진대회에 참가한 강경호(기계자동차공학과 4년) 학생은 “생성형 AI 기술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평소 관심이 많았던 도내 기업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취업 준비의 필요



성을 더욱 더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인 신숙경 교수는 “생성형 AI 등장으로 채용 트렌드, 취업 준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화형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준비하게 됐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를 파악하고, 본인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초등 문해교육 교원 양성과정 운영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문해교육 초등 교원의 실무 역량을 목표로 문해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초등 문해교육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28일부터 7월 13일까지 3주간 익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초등 문해교육 교원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 과정은 △사전교육(플립러닝 2.5시간), △온라인교육(11시간), △집합연수(43.5시간), △현장실습(15시간)으로 이뤄지며, 집합교육 교과목으로는 문해교육개론 및 문해교육 학급 운영 등 문해 교원으로서 기본역량과 전문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또한 소그룹 멘토링 프로그램과 현장실습을 통해 교원 연수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연수 과정 이수자들은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 교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도내 비문해 성인의 문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해 교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만희 기자